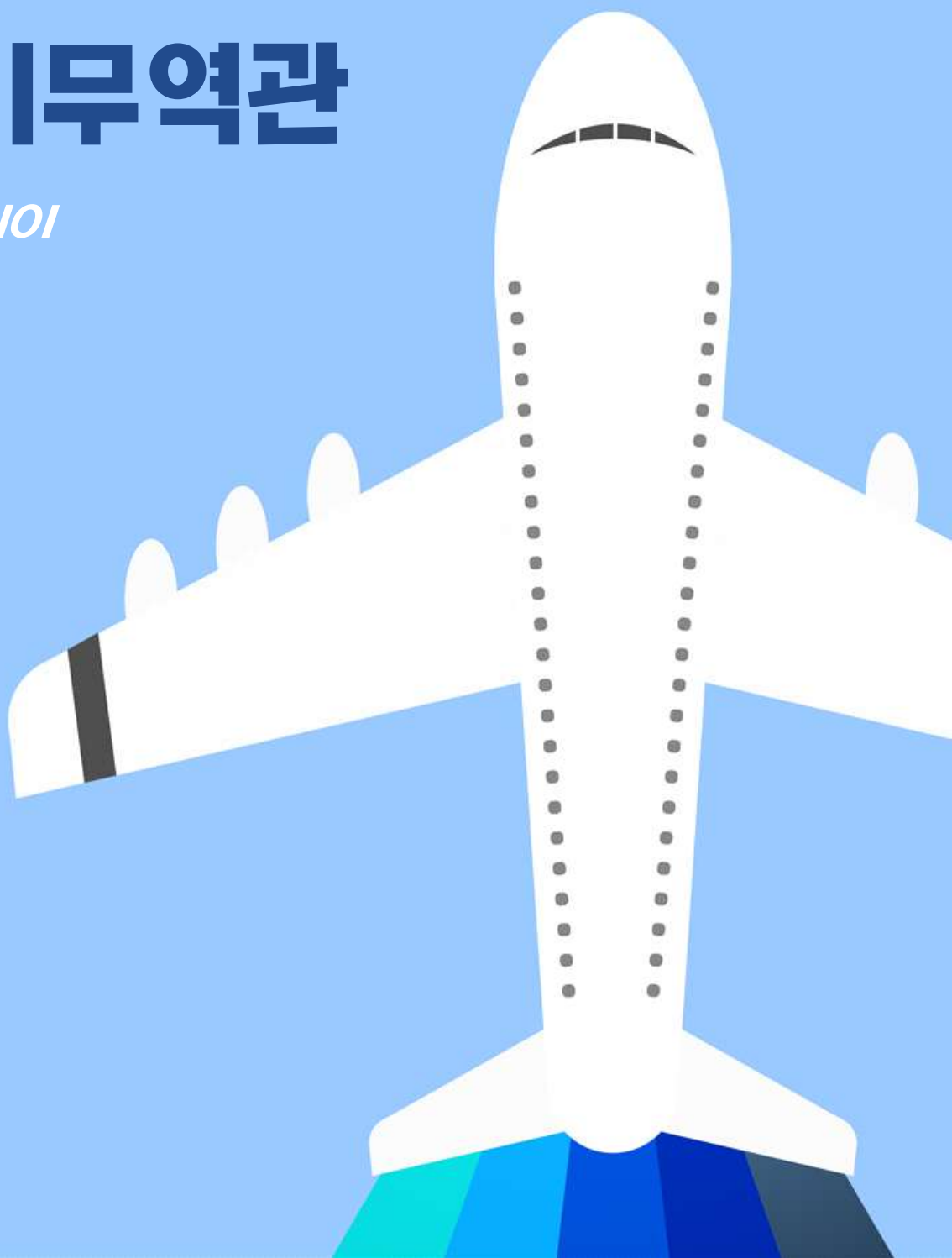


2024 해외출장 가이드

# 베트남 하노이무역관

*KOTRA HANOI*



## 목 차

I. 베트남 및 하노이 개황 .....	1
II. 베트남 경제 및 무역·투자 동향 .....	3
III. 베트남 경제 특징과 정책 동향 .....	15
IV. 베트남 경제 전망 .....	25
V. 체류 시 참고 사항 .....	26
VI. 주요 연락처 .....	29

## I. 베트남 및 하노이 개황

### 1. 베트남 개황

- ☐ 면 적: 331,345km<sup>2</sup>(한반도의 약 1.5배, '21년 12월 기준, 베트남 통계총국)
- ☐ 인 구: 약 1억 30만 명('23년 기준, 베트남 통계총국)
- ☐ GDP: 4,333.6억 달러('23년 명목 GDP 기준, IMF)
- ☐ 1인당 GDP: 4,316.3달러('23년 명목 GDP기준, IMF)
- ☐ 경제성장률: 5.05%('23년 기준, 베트남 통계총국)
- ☐ 물가상승률: 3.25%('23년 소비자물가지수(CPI) 기준, 베트남 통계총국)
- ☐ 환 율: 1달러 당 23,277.35 VND('22년 평균, 베트남 통계총국)
- ☐ 시 차: 한국보다 2시간 늦음
- ☐ 민 족: 비엣족(총인구의 약 85.7%), 타이족, 크메르족 등 54개 민족
- ☐ 종 교: 무교(8,300만 명), 불교(460 만 명), 가톨릭(586만 명), 개신교(96만 명)  
\* '19년 베트남 통계총국 인구주택총조사
- ☐ 정치체제: 사회주의 공화국(공산당 일당)
- ☐ 주요 지도자
  - 당서기장: 응우옌 푸 쯙(Nguyen Phu Trong)
  - 국가주석: 토 람(To Lam)
  - 총 리: 팜 민 쩌(Pham Minh Chinh)
  - 국회의장: 쩌 타인 먼(Tran Thanh Man)



## 2. 하노이 개황

### □ 기본개황

- 면 적: 3,359.8km<sup>2</sup>(’22년 기준, 베트남 통계총국)
- 인 구: 8,435,700명(’22년 기준, 베트남 통계총국)  
\* 호치민 939만 명, 하이퐁 209만 명, 껀터 125만 명, 다낭 122만 명
- 평균기온: 25.0°C(’22년 기준, 베트남 통계총국)
- 평균습도: 74.3%(’22년 기준, 베트남 통계총국)



(자료: 하노이 인민위원회 누리집)

### □ 지명유래 및 역사

- (중국 지배기) 행정중심지로 다이라(Dai La, 大羅)성으로 불렸음
- (1010년) 리(Ly, 李)왕조의 창시자인 리타이토(Ly Thai To, 李太祖) 왕이 호아르(Hoa Lu)에서 하노이로 수도를 옮김(당시 이름은 Thang Long, 昇龍)
- (1397년) 쩐(Tran, 陳)왕조 말기 왕실의 외척이며 권신이었던 호꾸리(Ho Quy Ly)가 타잉호아(Thanh Hoa)에 새 수도를 건설하면서, 타잉호아를 떠이도(Tay Do, 西都)라 칭하고 탕롱을 동도(Dong Do, 東都)라 칭함
- (1428년) 후기 레(Le, 黎) 왕조를 수립한 레타이토(Le Thai To, 黎太祖)가 고향인 타잉호아 람썬(Lam Son)을 람깁(Lam Kinh, 藍京)이라 하고 탕롱을 동깁(Dong Kinh, 東京)이라 개칭
  - 17세기 이래 유럽인들은 동깁을 톤킹(Tonkin)으로 표기
- (19세기 초) 응웬(Nguyen, 阮) 왕조는 수도를 중부도시 후에(Hue)로 옮기고, 탕롱이라는 지명을 ‘하노이(Ha Noi, 河內)’로 개칭(Red River와 To Lich River의 사이)
- (1945년) 독립 후 하노이를 다시 수도로 지정
- (1954년~1975년)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수도(북베트남)
- (1976년~현재)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수도

## II. 베트남 경제 및 무역·투자 동향

### 1. 베트남 경제동향

#### □ 주요 거시경제지표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2022	2023
명목 GDP	억 USD	3,318.2	3,463.1	3,697.4	4,064.5	4,333.6
1인당 명목 GDP	USD	3,439.1	3,548.9	3,753.4	4,086.5	4,316.3
실질경제성장률	%	7.36	2.87	2.56	8.02	5.05
물가상승률(CPI)	%	2.79	3.23	1.84	3.15	3.25
실업률	%	2.17	2.48	3.2	2.34	2.28
수출	억 USD	2,643	2,827	3,363	3,713	3,547
수입	억 USD	2,537	2,628	3,330	3,589	3,264

자료: 베트남 통계총국(경제성장률, CPI, 실업률), 관세총국(수출·입), IMF(GDP)

#### □ 2023년 경제 동향

- **(개요)**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기간에도 불구하고 생산, 수출 등 각종 경제 지표가 크게 증가해 8.02%의 성장률을 달성했던 2022년과 달리, 코로나19 이후의 경기 회복이 더뎠으며 2023년 베트남 경제는 **5.05% 성장**
  -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대외 수요 감소, 일부 선진국의 통화 긴축, 지정학적 긴장 심화 등 주로 대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회복세가 더딘 것으로 분석됨
  - 연도별 성장률: ('20) 3.19% → ('21) 5.76% → **( '22) 8.02% → ( '23) 5.05%**
- **(무역)** 역대 최고 교역액을 기록했던 2022년과 달리, 2023년에는 수입과 수출 모두 감소하며 전년 대비 6.7% 감소한 **6,810억 달러의 교역 규모** 기록, 무역수지는 **8년 연속 흑자 달성**
  - 다만, 수출(-4.48%)보다 수입(-9.06%)이 더 크게 줄어 '불황형 흑자' 기록
  - 연도별 교역규모(단위: 달러): ('20) 5,454억 → ('21) 6,691억 → **( '22) 7,302억 → ( '23) 6,810억**
- **(투자)** 인바운드 FDI는 **366.1억 달러**로 전년 대비 **32.1% 증가**
  - 연도별 FDI(단위: 달러): ('20) 285.3억 → ('21) 311.5억 → **( '22) 277.2억 → ( '23) 366.1억**
- **(생산)** 산업생산지수(IIP) 기준 **전년 대비 1.5% 증가**에 그치며 부진
  - IIP의 전년 대비 증감률: ('20) 3.3% → ('21) 4.7% → **( '22) 7.4% → ( '23) 1.5%**
- **(물가)** 소비자물가지수(CPI) 기준 **3.25%**로 안정세 유지('23년 정부 물가 목표: 4.5% 이내)
  - 연도별 CPI: ('20) 3.23% → ('21) 1.84% → **( '22) 3.15% → ( '23) 3.25%**

## 2. 베트남의 대외 교역

### □ 베트남의 대외 교역 동향

- (2022년) 역대 최고 교역액 7,302억 달러 기록, 무역수지 7년 연속 흑자 달성
  - 수출액 3,713억 달러, 수입액 3,58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 10.5%, 7.8% 증가, 무역수지는 124억 달러 흑자 기록
  - 2022년 베트남의 수출 및 수입에서 FDI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3%(2,710억 달러), 65%(2,333억 달러)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
  - 교역 순위는 1위 중국(1,756억 달러), 2위 미국(1,239억 달러), 3위 한국(864억 달러) 순
- (2023년) 교역액·수출액·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모두 감소,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면서 '불황형 흑자' 발생
  - 베트남 교역 규모는 6,810억 달러로 전년 대비 6.73% 감소했으며,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대외 수요(생산 및 수출 주문) 감소가 원인으로 분석됨
  - 수출(3,547억 달러, 4.5% 감소)보다 수입(3,264억 달러, 9.1% 감소) 감소가 커 무역수지는 283억 달러 흑자 기록
  - 교역 순위는 1위 중국(1,719억 달러), 2위 미국(1,108억 달러), 3위 한국(760억 달러) 순

<베트남의 대외 교역 동향>

(단위 : US\$ 백만,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수출	214,019 (21.8)	243,483 (13.3)	264,267 (8.4)	282,629 (6.9)	336,311 (19.0)	371,304 (10.5)	<b>354,671</b> <b>(△4.5)</b>
수입	211,104 (21.9)	236,688 (11.3)	253,393 (7.0)	262,691 (3.7)	332,235 (26.5)	358,902 (7.8)	<b>326,374</b> <b>(△9.1)</b>
무역수지	2,915	6,795	11,118	19,938	4,076	12,403	<b>28,297</b>
교역규모	425,123 (21.8)	480,171 (12.3)	517,660 (7.7)	545,319 (5.3)	668,546 (22.7)	730,206 (9.1)	<b>794,213</b> <b>(△6.7)</b>

주: 괄호 안 숫자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베트남 관세총국

<'19~'23년 베트남의 10대 교역국 순위 및 국가별 교역 규모>

(단위 : US\$ 십억, %)

순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국가	교역액 (비중)	국가	교역액 (비중)	국가	교역액 (비중)	국가	교역액 (비중)	국가	교역액 (비중)
1	중국	116.9 (22.6)	중국	133.1 (24.4)	중국	165.8 (24.8)	중국	175.6 (24.0)	중국	171.9 (25.2)
2	미국	75.8 (14.6)	미국	90.8 (16.6)	미국	80.5 (16.6)	미국	123.9 (17.0)	미국	110.8 (16.3)
3	한국	66.8 (12.9)	한국	66.0 (12.1)	한국	56.4 (11.7)	한국	86.4 (11.8)	한국	76.0 (11.2)
4	일본	39.9 (7.7)	일본	39.6 (7.3)	일본	30.9 (6.4)	일본	47.6 (6.5)	일본	45.0 (6.6)
5	대만	19.5 (3.8)	대만	21.0 (3.9)	대만	18.6 (3.9)	대만	27.7 (3.8)	대만	23.2 (3.4)
6	태국	17.0 (3.3)	태국	15.9 (2.9)	태국	13.7 (2.8)	태국	21.6 (3.0)	태국	19.0 (2.8)
7	홍콩	11.2 (2.2)	홍콩	11.5 (2.1)	인도	9.8 (2.0)	호주	15.7 (2.2)	인도	14.4 (2.1)
8	말레이 시아	11.1 (2.1)	말레이 시아	10.0 (1.8)	홍콩	9.6 (2.0)	인도	15.0 (2.1)	인도네 시아	13.8 (2.0)
9	독일	10.3 (2.0)	독일	10.0 (1.8)	말레이 시아	9.1 (1.9)	말레이 시아	14.7 (2.0)	호주	13.8 (2.0)
10	인도	9.1 (1.8)	인도	9.7 (1.8)	호주	9.1 (1.9)	인도네 시아	14.2 (1.9)	말레이 시아	12.7 (1.9)

자료: 베트남 관세총국

<'23년 베트남의 주요 수출·수입국 현황>

(단위 : US\$ 십억, %)

순위	국가명	수출액(비중)
1	미국	96.99(27.3)
2	중국	60.71(17.1)
3	한국	23.45(6.6)
4	일본	23.29(6.6)
5	네덜란드	10.23(2.9)
6	홍콩	9.63(2.7)
7	인도	8.50(2.4)
8	독일	7.40(2.1)
9	태국	6.94(2.0)
10	영국	6.34(1.8)
기 타		101.19(28.5)
합 계		354.67(100)

순위	국가명	수입액(비중)
1	중국	110.63(33.9)
2	한국	52.47(16.1)
3	일본	21.63(6.6)
4	대만	18.42(5.6)
5	미국	13.82(4.2)
6	태국	11.8(3.6)
7	인도네시아	8.73(2.7)
8	호주	8.53(2.6)
9	말레이시아	7.81(2.4)
10	쿠웨이트	5.88(1.8)
기 타		66.65(20.4)
합 계		326.37(100)

자료: 베트남 관세총국

<베트남의 주요 수출 품목>

(단위: US\$ 백만, %)

순위	품목	2022년		2023년		
		수출액	비중	수출액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비중
1	컴퓨터, 전자제품 및 부분품	55,536	15.6	57,336	3.2	16.2
2	전화기, 무선통신기기 및 부분품	57,994	15.0	52,379	-9.7	14.8
3	기계, 장비, 도구 및 기타 부속품	45,751	12.3	43,128	-5.7	12.2
4	섬유·의류제품	37,567	10.1	33,329	-11.4	9.4
5	신발류	23,896	6.4	20,238	-15.3	5.7
6	수송수단 및 부속품	11,988	4.3	14,157	18.1	4.0
7	목재 및 목제품	16,011	3.2	13,468	-15.9	3.8
8	수산물	10,923	2.9	8,971	-17.8	2.5
9	철강	7,993	2.2	8,350	4.5	2.4
10	카메라 및 부분품	6,374	1.7	7,619	19.5	2.1
	기타	97,270	26.2	95,696	-	27.0
	총 수출액	371,304	100	354,671	-4.5	100

주: 2023년 수출액 기준 순위 / 자료: 베트남 관세총국

<베트남의 주요 수입 품목>

(단위: US\$ 백만, %)

순위	품목	2022년		2023년		
		수입액	비중	수입액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비중
1	컴퓨터, 전자제품 및 부분품	81,884	22.8	87,966	7.4	27.0
2	기계, 장비, 도구 및 기타 부속품	45,193	12.6	41,580	-7.9	12.7
3	직물	14,707	5.9	24,048	-14.0	7.4
4	철강	11,920	4.1	10,425	-12.5	3.2
5	플라스틱 원료	12,387	3.5	9,755	-21.2	3.0
6	전화기 무선통신기기 및 부분품	21,126	2.6	8,749	-58.6	2.7
7	화학 원료	9,145	2.5	7,727	-15.5	2.4
8	기타 비금속류	9,254	2.4	7,627	-17.6	2.3
9	화학 제품	8,748	2.5	7,605	-13.0	2.3
10	석유제품	8,969	3.3	7,106	-8.6	2.2
	기타	135,569	37.8	113,786	-	34.9
	총 수입액	358,902	100	326,374	-9.1	100

주: 2023년 수입액 기준 순위 / 자료: 베트남 관세총국

## □ 한-베트남 교역 동향

- (2022년) 베트남은 한국의 3대 수출시장이자, 최대 무역흑자 대상국으로 등극하였으며, 교역액은 전년 대비 8.7% 증가한 약 877억 달러 기록
  - 한국의 대(對) 베트남 수출액은 609.72억 달러로 전년 대비 7.5% 증가하고, 수입액은 267.26억 달러로 11.5% 증가
  - 대베트남 수출 확대에 힘입어 한국의 대베트남 무역흑자 규모는 342.46억 달러에 달했으며, 베트남은 '22년 한국의 최대 무역흑자국으로 집계됨
- (2023년) 베트남은 한국의 제3위 교역국을 유지하고 있으며, 교역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9.4% 감소한 약 794억 달러를 기록
  -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액은 약 53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3% 감소했고, 수입액은 약 25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

### \* 한국의 대외교역에 있어 베트남의 위상 변화

- 수출: ('16)4위 → ('17)3위 → ('18)3위 → ('19)3위 → ('20)3위 → ('21)3위 → ('22)3위 → ('23)3위
- 수입: ('16)8위 → ('17)8위 → ('18)7위 → ('19)5위 → ('20)5위 → ('21)6위 → ('22)7위 → ('23)6위
- 교역: ('16)4위 → ('17)4위 → ('18)4위 → ('19)4위 → ('20)4위 → ('21)4위 → ('22)3위 → ('23)3위
- \* '23년 기준, 베트남 입장에서 한국은 3위 교역대상국(수출 3위, 수입 2위)

### <한국의 對베트남 교역 동향>

(단위: US\$ 백만,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수출 [한→베]	47,754 (46.4)	48,622 (1.8)	48,178 (△0.9)	48,511 (0.7)	56,729 (16.9)	60,964 (7.5)	53,480 (△12.3)
수입 [베→한]	16,177 (29.5)	19,643 (21.4)	21,072 (7.3)	20,579 (△2.3)	23,966 (16.5)	26,725 (11.5)	25,942 (△2.9)
무역수지	31,577	28,979	27,106	27,932	32,763	34,239	27,538
교역규모	63,931 (41.7)	68,265 (6.8)	69,250 (1.4)	69,090 (△0.2)	80,695 (16.8)	87,689 (8.7)	79,421 (△9.4)

주: 괄호 안 숫자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 품목별 한-베트남 수출입 현황

<'23년 한국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단위: US\$ 백만, %)

순위	품목명	수출액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비중
1	반도체	12,730	-21.6	23.8
2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12,350	-1.4	23.1
3	석유제품	3,320	-11.0	6.2
4	무선통신기기	2,166	-8.1	4.1
5	합성수지	1,998	-22.6	3.7
6	기구 부품	1,862	-15.1	3.5
7	플라스틱 제품	1,021	-4.2	1.9
8	철강판	888	-17.0	1.7
9	계측제어분석기	801	1.0	1.5
10	자동차부품	760	-35.0	1.4
	기 타	15,584	-	29.1
	합 계	53,480	-12.3	1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MTI 3단위 기준)

<'23년 한국의 對베트남 주요 수입품목>

(단위: US\$ 백만, %)

순위	품목명	수입액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비중
1	무선통신기기	4,544	-24.1	17.5
2	의류	3,545	-7.7	13.7
3	컴퓨터	2,076	6.6	8.0
4	반도체	2,053	160.9	7.9
5	산업용 전기기기	1,396	44.0	5.4
6	신변잡화	1,252	0.2	4.8
7	목재류	723	-23.3	2.8
8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658	-15.9	2.5
9	기구 부품	571	-12.7	2.2
10	기타 섬유제품	410	-7.2	1.6
	기 타	8,714	-	33.6
	합 계	25,942	-2.9	1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MTI 3단위 기준)

### 3. 베트남 외국인투자 유치 동향

#### □ 베트남 외국인 직접투자(FDI) 동향

- '23년 FDI 유치 총액은 366.1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2.1% 증가(베트남 기획투자부)
- '23년 한해 FDI 유치액 중 신규 투자는 3,188건, 201.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6.6% 및 61.9% 증가
  - 기존 사업에 대한 증액 투자는 78.8억 달러(전년 동기대비 22.1%↓), 지분 투자 및 주식매입 투자는 85.4억 달러(전년 동기대비 65.7%↑)
- 투자 분야로는 제조·가공업이 235.0억 달러가 투자되어 전체 FDI의 64.2%를 차지하였으며, 이어 부동산 경영업 46.6억 달러(12.7%), 전기가스 생산 및 판매 22.6억 달러(6.5%), 은행·금융업 15.5억 달러(4.3%), 전문과학 기술업 12.8억 달러(3.5%), 도소매 유통 및 수리업 12.6억 달러(3.4%) 순
  - '23년 한해 제조·가공업에 대한 신규 투자는 1,075건, 158.5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투자건수 110.4%, 투자액 119.8% 모두 큰 폭 증가
- '23년 한해 투자국별 순위는 싱가포르가 68.0억 달러로 최대 투자국, 이어 일본 (65.6억 달러), 홍콩(46.8억 달러), 중국(44.7억 달러), 한국(44.0억 달러) 순
  - \* 일본은 '23년 12월 15일, 타이빈성 LNG 발전소(Kyuden International Corp/ Tokyo Gas)에 19.9억 달러 투자
  - 국가별 신규 투자 규모는 싱가포르(37.7억 달러), 중국(35.4억 달러), 홍콩 (34.1억 달러), 일본(28.5억 달러), 대만(22.4억 달러), 한국(18.4억 달러) 순
  - 기존 프로젝트에 대한 증액 투자는 한국이 21.6억 달러로 중국(2위) 11.4억 달러와 압도적 차이를 보임

#### <최근 5년 외국인 총투자액 변동 현황>

(단위: USD 백만, 건)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누적 총투자액 ('88~'23)
투자 금액	38,951.7	28,530.1	31,153.3	27,718.1	36,607.6	468,917.5
증감율 (전년 대비)	9.8%	-24.9%	9.2%	-11.0%	32.1	-
투자 건수	16,227	9,804	6,520	6,709	7,901	39,140
증감율 (전년 대비)	51.4%	-35.0%	-33.5%	2.8%	17.7%	-

\*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2023.12.20. 기준, 증감률은 전년 대비, 등록 기준

\*\* 연간 총투자는 (신규투자+증액투자+주식/지분 투자 포함)

< 최근 3년 주요국 對 베트남 투자 현황 >

(단위: USD 백만)

국가명	2021년		2022년		2023년		누적 총투자액 (‘88~’23)
	투자액	전년대비 증감률	투자액	전년대비 증감률	투자액	전년대비 증감률	
한국	4,953.2	25.4%	4,879.0	-1.5%	4,400.9	-9.8%	85,865.8
싱가포르	10,712.0	19.1%	6,455.0	-39.7%	6,803.5	5.4%	74,519.4
일본	3,897.5	64.6%	4,781.4	22.7%	6,566.0	37.3%	73,962.9
대만	1,252.0	-39.2%	1,351.6	8.0%	2,883.8	113.4%	39,315.9
홍콩	2,315.8	15.8%	2,223.9	-4.0%	4,684.0	110.6%	34,124.0
중국	2,921.7	18.8%	2,518.0	-13.8%	4,470.9	77.6%	27,479.1
버진 아일랜드	569.6	-36.9%	607.0	6.6%	225.6	-62.8%	22,724.0
네덜란드	1,122.3	25.2%	702.2	-37.4%	805.8	14.7%	14,205.7
태국	349.7	-80.4%	198.9	-43.1%	879.5	342.2%	14,054.6
말레이시아	142.8	-26.8%	185.2	29.6%	442.2	138.8%	13,106.9
미국	738.7	104.8%	748.2	1.3%	626.3	-16.3%	11,826.7

\*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2023.12.20. 기준, 무역관 자체 집계, 순서는 누적 투자액 순

< 2023년 1-12월 주요국 對 베트남 투자현황 >

(단위: USD 백만, 건)

국가명	신규프로젝트		증액투자 프로젝트		M&A 및 주식매입		총투자액	투자 비율 (%)
	프로젝트수	투자금액	프로젝트수	투자금액	프로젝트수	투자금액		
싱가포르	410	3,769.9	153	832.0	349	2,201.5	6,803.5	18.6
일본	302	2,856.3	144	767.2	230	2,942.5	6,566.0	17.9
홍콩	315	3,413.0	107	1,139.1	91	131.9	4,684.0	12.8
중국	707	3,544.4	179	766.4	412	160.1	4,470.9	12.2
한국	472	1,840.9	327	2,159.2	961	400.8	4,400.9	12.0
대만	210	2,246.2	103	351.0	235	286.5	2,883.8	7.9
사모아	43	257.3	24	465.8	15	211.6	934.7	2.6
태국	57	490.6	15	352.8	44	36.1	879.5	2.4
네덜란드	20	275.9	17	76.0	24	453.8	805.8	2.2
미국	124	113.1	27	315.5	150	197.8	626.3	1.7
기타	-	-	-	-	-	-	-	-
FDI 총계	3,188	12,466.2	1,262	7,880.8	3,451	8,541.2	36,607.6	100%

\*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2023.12.20. 기준, 기타국 투자 수치 제외

< 코로나 이전 대비 외국인 제조업 투자변동 현황 >

(단위: USD 백만, 건)

국가명	신규프로젝트		증액투자 프로젝트		M&A 및 주식매입		총투자액
	프로젝트수	투자금액	프로젝트수	투자금액	프로젝트수	투자금액	
2020년	800	7,190.7	680	4,593.8	1,268	1,816.5	13,601.1
2021년	533	7,251.9	612	7,346.3	650	3,522.6	18,120.9
2022년	511	7,213.6	644	7,977.9	471	1,611.1	16,801.5
2023년	1,075	15,850.1	691	6,116.8	529	1,538.1	23,505.0
'20년 대비 '23년 증감률(%)	<b>34.4%</b>	<b>120.4%</b>	<b>1.6%</b>	<b>33.2%</b>	<b>-58.3%</b>	<b>-15.3%</b>	<b>72.8%</b>

\*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2023.12.20. 기준, 기준점 '20.12=100%

□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 동향

- '23년 말 누계, 대 베트남 한국 투자는 총 9,863개 프로젝트 투자액 850억 달러
  - 누계기준 한국 투자는 제조업에 집중(72.9%) 다음으로 부동산 경영업(11.6%), 건설업(3.2%), 전력/용수/가스 제조 및 판매업(3.2%), 요식업(2.7%), 도·소매 유통 및 수리서비스업(1.9%), 물류운송업(1.0%) 순
- '23년 한 해, 한국의 대 베트남 투자는 전년 대비 9.8% 감소하며, 타국 대비 투자 부진 두드러져, 제조업의 경우 '23년 투자액은 39.1억 달러로 '22년(41.1억 달러) 대비 4.8% 감소
  - 각 분기별로는 한국의 대 베트남 총투자액 및 제조업 분야 투자 모두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점은 긍정적 요인
- \* '23년 4분기, 대형 투자 프로젝트 : 효성 첨단소재(탄소섬유공장, 5.6억 달러) / SKC(생분해 소재 생산시설, 5억 달러) / 하이트진로(주류제조, 1억 달러) / 하나마이크론(5천만 달러 증액), 현대조선베트남(조선, 4천만 달러 증액)

< 2023년 분기별 한국의 對 베트남 투자 추세 >

(단위: USD 억, 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총투자	프로젝트 수	344	506	476	434
	투자액	4.7	7.2	14.4	17.4
제조업 투자	프로젝트 수	80	129	119	105
	투자액	3.6	6.6	13.5	15.3

\*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2023.12.20. 기준, 무역관 자체 집계

- '23년 한해, 한국의 투자 중 신규 투자는 472건, 18.4억 달러(총 투자액의 41.8%)였으며 그 중 제조업 분야 신규 투자는 133건, 17.2억 달러로 동기간 신규 투자 총액 중 약 93%를 차지하며 투자를 선도
  - 기존 사업에 대한 증액 투자는 327건, 21.6억 달러(LG 이노텍 10억 달러 증자, 서진 베트남 1억 달러 증자)로 동 기간 한국의 대 베트남 투자형태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총투자의 49%), 지분 투자 및 주식매입은 961건 4.0억 달러(총투자의 8.5%)임
- 코로나 발생 이후 최근 4년 중 가장 많은 신규 프로젝트가 투자된 것은 긍정적이나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여전히 50% 수준에 머물러. 기타 증액투자 및 M&A, 주식매입 투자는 전년 대비 각각 23.4%, 57.4% 등 큰 폭 감소

< 최근 5년 한국의 對 베트남 투자동향 >

(단위: USD 백만, 건)

연도	신규프로젝트		증액투자 프로젝트		M&A, 주식매입		총투자액
	프로젝트수	투자금액	프로젝트수	투자금액	프로젝트수	투자금액	
2019년	1,137	3,668.7	457	1,580.2	2,959	2,667.9	7,917.0
2020년	609	1,205.8	354	1,740.1	1,823	1,003.1	3,949.1
2021년	361	1,198.9	280	3,162.8	1,301	591.4	4,953.1
2022년(B)	416	1,118.8	361	2,818.6	1,215	941.6	4,879.0
2023년(A)	472	1,840.9	327	2,159.3	961	400.8	4,400.9
증감률 (A:B)	13.5%	64.5%	-9.4%	-23.4%	-20.9%	-57.4%	-9.8%

\*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2023.12.20. 기준

- 투자 분야로는 **제조·가공업이 39.1억 달러가 투자되어 전체 투자의 88.8%를 차지**, 이어 도소매 유통, 수리업 1.6억 달러(3.6%), 전문과학기술업(1.7%), 물류운송업(1.6%), 부동산 경영업(1.2%), 정보통신업(0.8%) 순이며 제조업에 투자가 집중됨
- '23년 한해는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전년 대비 투자 부진을 겪은 것으로 파악

< 2023년 1-12월 한국의 대베트남 주요 산업별 투자 현황 >

(단위: USD 백만, %)

분야	총투자액 (백만USD)	전년동기 대비 증감율	투자비율	*신규+증자 투자금액 (백만USD)	*M&A/주식매 입 투자금액 (백만USD)
제조 가공업	3,910.2	-4.8%	88.8%	3,722.7	187.4
도소매 유통, 수리업	158.6	-20.7%	3.6%	65.1	93.4
전문과학기술업	74.0	-42.2%	1.7%	17.1	56.9
물류운송업	69.1	-23.4%	1.6%	57.3	11.8
부동산 경영업	54.0	-66.2%	1.2%	45.2	8.8
정보통신업	36.9	-58.9%	0.8%	26.1	10.8
용수공급 처리업	27.4	1.8%	0.6%	27.4	0.0
건설업	20.1	-31.6%	0.5%	12.9	7.2
기타	50.7	-	1.2%	26.3	24.4
총액	4,400.9	-9.8%	100%	4,000.1	400.8

\*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2023.12.20. 기준

## □ 한국의 대 베트남 투자 감소 요인

### (1) 코로나19, 미-중 무역 갈등, 글로벌 경기 위축 등 연속적 위기

- 팬데믹 기간('20~'22년) 베트남 정부의 강력한 방역정책과 글로벌 수요 부진의 영향으로 그동안 대규모 생산 네트워크를 운영해 온 우리 기업의 현지 생산량 감소 및 해외수출 감소 발생, 투자 지연으로 이어진 요인
- 최근 중국, 홍콩, 싱가포르의 대베트남 투자 확대는 중국 내 제조 및 수출 여건 악화로 인한 대체 제조거점 확보를 위한 공장 이전에 기인
  - 한국의 경우 과거 삼성전자, LG전자, 효성, 롯데 등 대기업들은 2010년경 대부분 생산기지를 베트남으로 이전하였기에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우리 기업 탈중국 영향은 크지 않아

### (2) 한국의 對 베트남 대형 투자 감소

- 지난 10여 년간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는 대기업이 선제적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투자하고 협력사 및 관계사가 동반 진출하는 형태가 대부분
  - 삼성전자, LG전자, 효성, 포스코, 롯데, 현대, 두산 등 10대 대기업 그룹사들의 대베트남 투자액은 약 400억 달러로, 베트남 전체 한국 투자액인 850억 불의 약 47%를 차지
- 과거 전기·전자, 화학, 중공업 등 분야에서 투자 규모 1억 달러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가 투자되었으나, 2019년 이후 대형 프로젝트 투자 급감

### (3)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주요 제조 프로젝트 미국 공급망 이전, 인도네시아 및 인도 등 신시장 진출 증가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주요 제조 프로젝트의 미국 공급망 이전, 신흥 유망 시장인 인도의 성장, 글로벌 경기 악화에 따른 판매 물량 감소 및 고금리로 인한 해외 투자자금 조달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후 대베트남 한국 투자는 지속 감소세 중이며, 대 미국 투자 비중은 약 100% 증가. 또한 과거 한국의 베트남 투자액 대비 약 20%에 머물던 대인도네시아 투자는 '23.9월 기준 약 80% 수준까지 증가

### Ⅲ. 베트남 경제 특징과 정책 동향

#### 1. 베트남 경제 및 시장 특징

##### □ 베트남의 내수경제 시장, 중산층의 증가로 인하여 점차 두터워질 것

- 2021년 베트남 인구, 9,851만 명, 2030년까지 1억 400만 명에 도달 전망
  - 2021년부터 2030년까지 9년간 베트남 통계청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 전망치는 0.61%이나, 1가구 2자녀 미만 출산 및 가구당 소득 증가로 인하여 가처분 소득이 증가할 전망
  - 2021년 여성: 남성 비율은 50.2%: 49.8%, 도시와 농촌 비율은 37.1%: 62.9%, 남녀 출생 성비는 113.8: 100.0이며, 출생 시 기대 수명은 73.7세임
  - 또한 만 15세 이상 노동 가능 인구는 5,050만 명, 이 중 취업 인구는 4,900만 명이며, 노동 가능 인구의 실업률은 3.22%, 이들의 미취업률은 3.10%로 추산
  - \*도시화율은 2020년 기준 37%에서 2030년 44%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 향후 10년 이내 베트남의 도시 거주 인구가 약 1,000만 명 증가할 가능성 다대
- 2022년 베트남의 지역별 인구는 전년 대비 대부분 증가했으며, 1인당 월평균 급여의 경우 메콩 삼각주와 중부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함
  - 매킨지, 2000년에는 베트남 인구의 10% 미만이 소비계층에 편입되어 있었으나, 2020년에는 인구의 40%가 일일 11~70달러를 소비하며, 2030년까지 인구의 75%가 일일 구매력 11~70달러 사이로 성장 전망

#### <베트남의 지역별 인구 및 1인당 월평균 급여(2021~2022)>

(단위: 백만 명, 천 동)



자료: 베트남 통계청, Q&Me,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 소도시 및 지방 소비자의 구매력 향상
  - 전통적인 소비 세력은 베트남의 양대 도시인 하노이와 호치민 시에 밀집되어 있으나, 위성도시 및 지방 성·시의 소득은 점차 향상될 것으로 예상
  - 2020년 하노이와 호치민 시는 2011년 소비자구매력(PPP) 기준으로 2만 2,000달러 이상인 베트남 전체 가구의 37%를 차지했으나, 2030년에는 이들의 비중이 31%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반면 향후 메콩삼각주 유역과 홍강 삼각주 유역 거주자의 소득과 구매력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
- 2030년까지 향후 10년간 하루 최소 11달러를 지출하는 소비계층이 3,600만 명 추가될 것
  - 매킨지, 2000년에는 베트남 인구의 10% 미만이 소비계층에 편입되어 있었으나, 2020년에는 인구의 40%가 일일 11~70달러를 소비하며, 2030년까지 인구의 75%가 일일 구매력 11~70달러 사이로 성장 전망

## □ GVC 수혜국 입지 확립, 전방산업으로의 업그레이드 도모

- 현지화 비율 향상 정도가 GVC 참여도를 높일 것
  - FDI 기업의 매력적인 목적지가 되기 위해서는 베트남의 현지화 비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
    - \*베트남 소재 일본 기업의 현지 부품 및 원자재 조달 비중은 37%에 불과하나 인도네시아는 47% 이상, 태국은 60%에 육박
  -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현지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베트남 인적자원의 숙련도를 향상시키고, 디지털 전환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이 필수적
- 베트남의 GVC 참여지수는 62.1로 아시아(44.4), 유럽(48.8), 북미(37.8), 남미(36.5)에 비해 현저히 높음
  - 베트남의 참여지수는 전방산업(최종소비자와 가까운 업종)보다 후방산업(제품 소재나 원재료 공급 쪽에 가까운 업종) 비율이 높으므로 최종소비자와 가까운 전방산업의 비중을 향상시키는 것이 베트남 GVC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의 전방산업 참여지수는 11.0, 후방산업 참여지수는 51.1로서 베트남은 제품 소재나 원재료 공급에 가까운 공급망을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WTO가 조사한 2010년 대비 2018년 베트남의 GVC 참여 비율은 16.5%로 증가하여 아시아(4.5%), 유럽(4.0%), 북미(4.4%), 남미(1.3%)의 증가율 대비 월등히 높은 성장세를 보여줌
- \* 향후 베트남의 전방산업 참여 비율이 증가하면 베트남의 GVC 가치 역시 동반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숙련 노동자 양성이 베트남 부가가치 산업 활성화의 핵심

- 베트남 현지의 전자산업 종사자 130만 명 대부분 단순노동자, 관리직 역시 전문성 부족
-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와 국제노동기구(ILO)가 2021년 4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전자기업 근로자의 약 5%, 기본 업무 능력 부족으로 작업에 애로가 있다고 밝힘
- \* 응답 기업의 60%는 숙련 노동자 부족, 50%는 관리직 전문성 부족 호소
- 베트남 현지 직원의 숙련도를 향상시키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전방산업으로 이동해야 베트남의 공급망 참여도가 실질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베트남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FDI 기업군**

○ FDI 기업이 베트남 수출 성장을 견인

- '21년도 FDI 기업의 수출액은 2,452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72.9% 차지, 베트남 대외교역에 있어서 FDI 기업의 높은 의존도를 방증
- \* 연도별 전체 수출에서 FDI 기업의 비중 추이: (2016년) 70.2% → (2017년) 71.1% → (2018년) 70.5% → (2019년) 68.0% → (2020년) 72.2% → (2021년) 72.9%

□ **가속화된 디지털전환,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세 눈여겨 보아야**

○ 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전자상거래 시장 중 하나로 연간 성장률 35%를 기록, 일본보다 2.5배 높은 성장률을 보임.

- Lazada, Shopee, Tiki, Sendo는 베트남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Big4로 꼽히며 은행들과 제휴를 맺고 자체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매출 증대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도시 (하노이, 호치민, 다낭)의 오프라인 쇼핑인구 중 20~30%가 온라인 쇼핑인구로 전환(Nielson)
- \* 온라인 배달 서비스 음식주문 플랫폼(Grab Food, Now, Baemin 등)의 배달 음식 주문량은 코로나 19 유행 이전보다 50% 증가, 지속 성장 전망
- \* 식료품 및 생필품 구매는 주로 Grab, Vinmart, Co.op, Chopp 등의 모바일 플랫폼 선호

- 가처분소득 증가 및 경기 활성화에 따른 소비 지출 확대, 인터넷 및 스마트폰 보급률 증가를 토대로 전자상거래 시장 역시 지속 성장할 전망
  - '20년 기준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8% 성장한 미화 118억 달러에 달함
  - 2021~2025년 기간 연 평균 25% 성장하고, 2025년까지 3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iDEA, 베트남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경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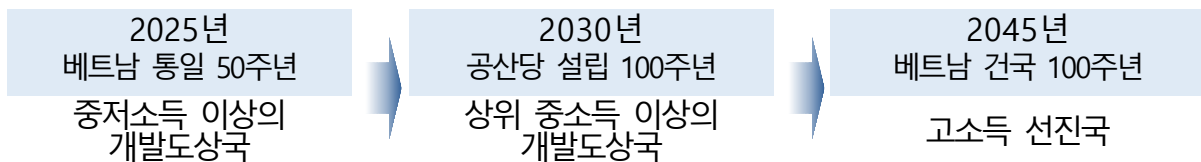
## □ 1국 3색의 베트남

- 베트남 북부·중부·남부는 물리적 거리, 역사적 배경, 상이한 기후조건 등으로 인해 성장 격차가 상당하며, 소비성향과 투자환경 면에서 차이가 뚜렷
- (호치민시) 베트남 경제도시이자 최대 소비시장
  - 의류·섬유, 경공업, 유통, 부동산, 건설 등 다양한 분야 투자 러시, 닌투언성, 빈투언성 등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와 스마트시티 등의 프로젝트 진행 중
  - 호치민시는 상대적으로 높은 거주자 소득수준, 쇼핑·외식·여가 지출에 관대한 성향, 새로운 상품에 대한 호의적 태도 등으로 소비재 진출 시장으로 적합
  - 베트남 시장의 테스트 베드로 주목을 받으며 상당수의 기업, 스타트업이 호치민 시에 전초기지를 구축
- (하노이) 하노이를 중심으로 대기업 및 1,2차 협력사 중심 투자
  - 소비시장 측면에서 하노이는 거주자들의 소비지출에 인색한 태도, 기존 브랜드에 대한 높은 충성도로 인해 신규 소비재 품목 진출지로는 부적합하다는 평가, 다만 과시적 소비성향이 강해 초고가 브랜드 입점이 활발한 편
  - 최근 인프라 개선과 행정개혁에 주력하고 있으며 동남권 유망 투자지로 재조명
  - 삼성, LG등 국내 전기·전자 대기업의 북부지역 투자 진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협력업체 상당수가 하이퐁시, 박닌성, 타이응우옌성 등에 진출
- (다낭) 베트남 대표 관광도시에서 동남권 하이테크 경제도시로 도약 추진
  - 2013년 하이테크파크 조성 후 외국인직접투자(FDI) 9건을 포함 총 18개 프로젝트에서 미화 5억 6400만 달러 유치
    - \* 미국의 유니버설알로이(Universal Alloy, UAC)는 보잉, 에어버스 등의 부품 공급 업체로서 다낭 Sunshine Aerospace 공장에서 4천여 종의 항공부품을 생산하여 북미, 유럽, 아시아로 수출
  - 외국자본의 고급 리조트 건설과 국제 직항노선 신규 취항이 잇따르면서 베트남은 물론 동남아 지역의 대표적 휴양지로 꼽히고 있음

## 2. 베트남의 정책 동향

### □ 2021~2030 사회경제개발전략 및 2021~2025 사회경제개발계획 목표 설정

- 베트남은 2021년 1월 25일에서 2월 1일까지 개최된 제13차 전당대회에서 중장기 국가 발전 목표와 계획 발표
  - (중장기 목표 및 전략 발표) ‘사회주의 지향 선진국 진입’\*을 비전으로 선포하고, 10개년 사회경제개발전략 및 5개년 사회경제개발계획\*\* 승인
  - \*베트남 건국 100주년인 2045년까지 1인당 GDP 1만 2천달러의 고소득 선진국으로 도약 목표
  - \*\*베 정부는 10년 단위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세부 이행 계획으로서 5년 단위의 목표 제시



- 또한 이를 위해 주요 과제 및 ▲선별적 FDI유치 및 국영기업 민영화, ▲고급 인력 양성, ▲교통, 에너지, IT 인프라 우선 구축을 3대 전략적 동력으로 발표

<주요 과제 및 목표>

분 야	주요내용
거시경제	▶ 연평균 GDP 성장률 7% 제조업·디지털 경제 비중 30% 등
산 업	▶ 혁신·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 인프라 개발
무 역	▶ FTA활용을 통한 수출 시장 확보, WTO 질서 준수
외 교	▶ 다자외교 증진 및 다자기구에 대한 적극적 기여

### ○ 10개년 사회경제개발전략 및 5개년 사회경제개발계획 주요 목표

2021~2030 사회경제개발전략	2021~2025 사회경제개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2030 사회경제개발 목표</li> <li>- (경제) 연평균 GDP 성장률 7% 실현, '30년 1인당 GDP 7.5천불 달성, 연간 노동생산성 증가율 6.5% 달성, 연평균 에너지 소비율 1~1.5% 감소 등</li> <li>- (3대 전략적 동력) <sup>i)</sup>글로벌 경제 편입 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체제, <sup>ii)</sup>고급인재/인력 양성, <sup>iii)</sup>인프라 확충</li> <li>- (과제 및 달성방안) 행정절차 개혁을 통한 영업활동 자유 보장, 디지털전환 촉진, 외투기업의 R&amp;D, 혁신센터 설립 장려, 교육기관 품질개선 및 온라인 교육 강화, 국유기업 구조조정·매각 등 효율 개선, 인프라개발 및 해양경제 개발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2020 사회경제개발계획 이행 평가</li> <li>- 전기 대비 소비자물가 안정화, 외환보유고 증대, 국가신용도 상승, 경상경비 감소, 재정적자 및 공공부채 감소 등 양호한 경제지표 실현</li> <li>- 환경·자원관리 개선, 행정개혁에 따른 기업환경 개선, 국방·안보 강화</li> <li>▶ 2021~2025 사회경제개발 목표</li> <li>- GDP 성장률 6.5~7% 유지, '25년 1인당 GDP 4.5~5천불 달성, 노동생산성 증가율 6.5% 달성</li> <li>- 코로나19 효과적 통제, 시장경제 발전, 거시경제 안정성 유지, 물가 관리</li> <li>- 자원 개발, 인프라사업 시행 촉진, 인적자원의 질 향상, 과학기술 발전·혁신 촉진</li> <li>- 국가관리 효율성 제고 및 부패 방지, 국방·안보 강화 등</li> </ul>

## □ 신규 투자법 및 투자법 시행령 공포에 따른 투자환경 변화

- 베트남 투자법 개정안 `20년 6월 17일 제정, 시행령 (Decree 31.2021/ND-CP) 공포
  - 베트남 정부는 미·중 무역전쟁 및 코로나 19로 인한 외국 투자기업 유치 강화 목적으로 '19년 8월 '2030년까지 해외투자 협력 증진 정책 및 체제 마련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였으며, 투자법 및 시행령에 로드맵을 반영
  - 2014년 제정된 베트남 투자법 No.67/2014/QH13을 대체하여 2021년 1월 1일부로 효력 발생
  - 투자법 시행령은 2015년 제정된 舊투자법 2015의 세부조항 및 이행지침을 대체하며, 총 9장 132개의 조문으로 구성
  - 투자법 및 투자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기존 외국 투자자들의 애로사항이었던 조건부 투자분야 진출, 베트남 정부와의 분쟁, 투자절차 간소화, 투자 인센티브 획득 조건 명확화 등에 있어 많은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보임

## □ 4차 산업혁명시대 동남아시아 IT강국 지향

- 베트남은 2019년부터 「Make in Vietnam」 4차 산업혁명 증진 캠페인을 시행, 2030년까지 첨단기술기업 10만 개사 육성, IT분야 세계 30위 진입, 디지털 경제의 GDP 점유율 30%로 확대 등을 목표로 수립
  -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정책 개혁과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어 기업 중심의 발전을 지향할 계획
  - 5G, 인공지능, 블록체인, 3D프린터, 사물인터넷(IoT), 네트워크보안 등 디지털 기술의 응용을 확대하고 청정에너지, 환경 기술 분야의 육성도 중점으로 삼을 전망
  - 첨단기술기업 육성을 위한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및 기초과학 연구 투자에 초점을 둘 계획

## □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노력 가속화

- '86년 제6차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대외개방을 표방한 '도이머이(Đổi Mới, 쇄신)'라는 정책을 도입한 이후, 베트남은 서구 국가들과 통상 관계를 확대하고 실리적이고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을 추진 중
  - 자주적이고 실리적인 외교·통상정책을 펼치고 있는 베트남 정부는 FTA 및 경제공동체 조성에 적극 참여 중

- 특히, 미국을 제외한 TPP 회원국들의 CPTPP 발효, '20년 8월 1일 발효된 EVFTA, RCEP 등의 영향으로 베트남은 유리한 통상환경 속에서 외국인 투자 및 교역을 크게 확대할 것으로 전망

<베트남의 FTA 추진 현황>

구분	발효 중	발효 예정 (타결·서명)	협상 중	검토 중
ASEAN 차원	AIFTA(인도, '10.1. 발효), AANZFTA(호주/뉴질랜드, '10.1. 발효) AKFTA(한국, '07.6. 발효) AJCEP(일본, '8.12. 발효), ACFTA(중국, '05.7. 발효) AHKFTA(홍콩, '19.6. 발효) RCEP('22.1. 발효)	-	-	-
베트남 단독	AEC(아세안경제공동체, '15.12. 출범), VJEPA(일본, '09.10. 발효), VCFTA(칠레, '14.1. 발효) VKFTA(한국, '15.12. 발효), VA-EAEU FTA(유라시아경제연합, '16.10. 발효) CPTPP('19.1. 발효), EVFTA('20.8. 발효)	-	E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VIFTA (이스라엘)	FTAAP

자료: VCCI(베트남 상공회의소) WTO센터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 □ 제조업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수출입세법상 면세제도 개선

- 2021년 3월 11일, 베트남 정부는 FDI기업과 베트남 내 대부분의 제조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수출입세법 시행령을 5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정(Decree No.18/2021/NĐ-CP)
  - 수출입세법 개정시행령은 수출가공기업(EPE)에 관한 요건을 명확화하고, 수출 제조기업(SXXX)보다 임가공기업(GC)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는 등 중요한 변화를 포함
  - 내국수출입에 대한 신고절차 및 제재가 명확화되었고, 생산 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원재료소요량을 실제 생산소요량(định mức sử dụng)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과세하는 등 우리 제조기업 대부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개정사항이 다수 반영

- 베트남 진출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수출용원재료 면세제도 요건 구체화
  - 수출가공기업(EPE)의 하드펜스 및 구역확보 요건, CCTV 설치 및 세관 연동 의무화 요건, 수책관리 소프트웨어 구비요건 등을 규정하였고, 개정시행령 발효 이후 1년 이내에 모든 기업이 관할 세관국에 요건 충족여부 확인 필요
  - 수출제조기업(SXXK)이 수출제조를 위하여 수입 및 국내 거래하는 원재료 중 정책상 관세징수권 확보 위험도가 높은 거래형태는 사전납부 후 환급 적용, 임가공계약을 통해 거래 관계를 명확하게 신고하는 임가공기업(GC)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파악

## □ PPP법 발효에 따른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여건 개선 기대

- 민관합작프로젝트(PPP)법(Law No. 64/2020/QH14)은 2020년 6월 18일 국회 통과, 2021년 1월 1일 발효
  - 기존 시행령(Law No. 63/2018/ND-CP)대비 기반시설 투자 가능 영역 추가, 최소 자기자본 상향조정, 투자 인센티브 및 리스크 분담, 외화 태환 허용 등의 법령 신설
  - 2021년 3월 PPP법 세부조항 및 안내 시행령(Decree No. 35/2021/ND-CP)과 PPP 프로젝트의 재무관리구조 규정 시행령(Decree No. 28/2021/ND-CP) 공표를 통해 세부시행 가이드라인 마련 및 내용 구체화
  - 경제성장과 함께 고속도로, 철도, 공항 등 인프라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베트남 정부의 재원 조달 부담에 따라 PPP 프로젝트를 활성화해 민간자금의 투자를 유도하고 민간부문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활용할 계획

## □ 환경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감 강화, 개정 환경보호법 발표

- 베트남 내 ESG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환경보호법은 기업의 환경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전망
  - 프로젝트의 규모, 환경 자원(수자원, 광물자원, 토양자원)의 이용 정도, 환경 민감도와 같은 특정 요소를 기반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프로젝트를 4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환경영향평가(EIA) 목록을 세분화
  - 생산 및 제조시설의 환경보호규정을 구체화하고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의무 확대
    - \*경제구역·산업단지 내 생산기업의 폐수처리 및 폐기물 배출 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환경 보호 및 관리 인프라 정의, 기업의 산업 폐기물 및 위험물질(오·폐수, 배기가스, 먼지, 기타 위험물질) 배출에 대한 책임 관리 의무 부여 등의 내용도 포함

<분류 그룹별 적용 환경영향평가(EIA) 요약>

관리도구	그룹 I (환경 위험 높음)	그룹 II (환경 위험 중간)	그룹 III (환경 위험 경미)	그룹 IV (환경 위험 없음)
예비환경영향평가 (공적투자(ODA) 및 PPP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비 환경영향평가 실시)	모두 해당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환경영향평가 타당성 조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수행	모두 해당	환경에 끼치는 민감 요인을 검토 후 판단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환경허가	폐수, 분진, 배기가스를 발생시키고 환경에 영향을 끼쳐 그룹 I~III 으로 분류된 프로젝트. 배출전 전 처리가 필요한 유해폐기물이 발생하는 프로젝트(ODA 프로젝트 제외)			해당 없음
환경등록	폐기물을 생성하지만 환경 허가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프로젝트. (a) 현장에서 처리 가능하거나 성·시 별 정책에 따라 관리되는 소량의 폐기물을 생산하는 경우 (b) 관련 프로젝트가 국방 및 안보와 관련된 경우			

자료: Allen&Gledhill

## □ 부품·소재산업 육성 정책

- 베 정부, 베트남 산업발전 및 부품소재 산업 육성 정책을 통해 글로벌 기업 현지투자 강화 및 제조산업의 고도화 도모
  - 글로벌 기업의 현지 투자 진출이 활성화되고, 제조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관련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발표

<베트남 정부의 부품소재 산업 주요 육성 정책>

정책명	내용
2035년 전망, 2025년까지의 국가산업 발전전략	· (법령) Decision No. 879/QĐ-TTg ('14년 6월) · (내용) 가공 및 제조 산업, 전자 및 통신 산업, 신재생에너지 부문등을 집중 육성분야를 선정하고 이들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부품소재산업의 육성과 외국인 투자 유치에 총력
부품소재산업 발전전략	· (법령) Decree No. 111/2015/NĐ-CP ('16년 1월) · (내용) 자동차조립, 전기전자부품, 첨단산업 포함 우선 육성 7개 부품소재분야 선정 및 발전지원정책 발표 * ▲법인세, 수입세 등에 인센티브 제공, ▲부품소재산업 시험 생산 프

	로젝트 투자 보조금 지원 ▲R&D 시설 설립을 위한 토지임대료 인센티브 제공, ▲R&D 장비 구매비용 최대 50%까지 보조금 지원 등
지원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 Resolution No. 115/NQ-CP ('20년 8월)</li> <li>· (목표) 2025년까지 자국기업이 국내 수요의 45% 충족 및 전체 산업 부문 생산가치의 약 11% 차지, 2030년까지 다국적기업이나 조립기업에 직접 납품이 가능한 기업 2,000개사 양산</li> <li>· (내용) 기계공학산업, 섬유 및 의류산업, 가죽 및 신발 산업, 전자산업, 자동차산업의 지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매커니즘 동기화 노력, 지원산업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등</li> </ul>

## IV. 베트남 경제 전망

### □ 2023년 경제성장률 5.05%, 2024년 정부 목표는 6.0~6.5%

- 2023년 10월, 베트남 정부는 기존 2023년 성장률 목표치인 6.5%를 5.0%로 하향 조정
  -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대외 수요 감소, 일부 선진국의 통화 긴축, 지정학적 긴장 심화 등 주로 대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경기 회복세가 더뎠던 것으로 분석됨

<2024년 주요 사회경제적 발전 목표>

지표	'24년 목표	'23년 목표
경제성장률	6.0~6.5%	6.5% → 5.0% (하향 조정)
1인당 GDP	4,700~4,730달러	4,400달러
GDP 대비 가공-제조업 비중	24.1~24.2%	25.4~25.8%
소비자물가지수(CPI)	4.0~4.5%	4.5%
노동생산성증가율	4.8~5.3%	5.0~6.0%

자료: 베트남 통계총국,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 □ 세계 주요 경제 기관, 경제성장률 6.0% 내외 전망

- 세계 주요 경제 기관은 2024년 경제성장률을 2023년에 비해 낙관적으로 전망
  - 안정적인 내수 소비와 비교적 일정한 물가상승률을 기반으로 불안정한 대외 요인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기관별 2024년 베트남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ADB	IMF	OECD	World Bank	Standard Chartered	Fitch Ratings	평균
전망치 (발표 시기)	6.0 ('23. 9.)	5.8 ('23. 10.)	6.6 ('23. 4.)	5.5 ('23. 8.)	6.7 ('23. 1.)	6.3 ('23. 11.)	6.15

자료: ADB, IMF, OECD, World Bank, Standard Chartered, Fitch Ratings

## V. 체류 시 참고 사항

### 1. 날씨

- 복장: 여름용 정장 및 평상복
- 하노이에는 봄, 여름, 가을이 존재하며 연중 고습함. 여름은 고온다습하나, 봄, 가을은 일교차가 심하며 일몰 후에는 서늘하므로 온도차를 고려하여 얇은 긴소매 겉옷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음

### 2. 입국 시 유의사항

- '10년 9월부터 입국신고 간소화로 출입국신고서 및 세관신고서 작성 불요
- 여권 훼손, 분실 시 출입국이 불가하므로 보관에 유의
- '20년 7월 1일 출입국법 개정(Law No.51/2019/QH14)에 따른 변경사항
  - 출국 후 30일 이내 재입국 비자면제 불가 규정 삭제(30일 이내 무비자 재입국 가능)
  - 관광비자(DL) 기존 최대 3개월에서 개정 이후 최대 30일 발급만 가능
  - \*관광비자를 90일마다 연장, 악용하는 사례가 보고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
  - 노동허가와 비자 혹은 거주증 없이 근로하는 경우 최대 미화 약 1천 달러의 벌금 및 강제출국 조치를 당할 수 있으며, 향후 베트남 입국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
- 베트남 정부는 '22년 3월 15일부 한국을 포함한 13개국 국민에 대한 15일 무사증 입국 조치 재개(베트남은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20년 3월부터 비자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외교, 공무수행자 및 베트남 정부의 승인을 받은 전문 인력, 사업관리자, 기술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한 바 있음)
  - 여권 종류 및 입국목적과 무관하게 적용
  - (시행일자) 2022. 3. 15. ~ 2025. 3. 14.
- 베트남 정부, 무비자 대상국 및 기간을 확대하여 한국의 경우 기존 15일에서 45일로 기간 연장('23. 8. 15.부 시행)

### 3. 환율 및 통화

- 통화: 베트남 동(VND)
- 환율
  - USD 1 = VND 24,260 ('24. 4. 19. 베트남 중앙은행 고시환율 기준)
  - KRW 1 = VND 18.4 ('24. 4. 19. KEB하나은행 고시환율 기준)

#### 4. 대중교통

- 대중교통: 버스노선 및 배차시간 불명확하므로 택시이용 편리
- 요금
  - 기본요금은 택시회사에 따라 VND 5,000~12,000까지 상이, 기본요금 이후 킬로미터당 VND 13,000이 부과
  -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에서 상업중심지구(CBD)까지의 평균 택시비는 VND 280,000~350,000(약 1만 3천원~1만 8천원)이며, 가까운 시내 주행 시 VND 60,000(약 3천원) 정도 소요

#### 5. Tip 제도

- 베트남에서는 정상요금에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어 팁 지불 불요

#### 6. 시차 및 근무시간

- 시차: 한국보다 2시간 느림 (한국 9시는 베트남 7시)
- 근무시간: 관공서와 은행은 주 5일 근무제(월~금)를 실시(07:30-16:30)
  - \*베트남 신한은행과 Techcombank를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점심시간에 문을 닫는 경우가 있음

#### 7. 전압

- 220V / 50Hz (3상 콘센트, 호텔은 한국 2상 콘센트 사용가능)

#### 8. 전화 거는 방법

- 베트남에서 외국전화 시 00 혹은 + 먼저 누르고 국가번호 및 전화번호 누름

#### 9. 유의사항

- 소매치기/강도 및 시클로(삼륜 자전거) 주의
  - 최근 외국인대상 소매치기/강도 등 범죄 증가, 늦은 시간 혼자 배회 자제
  - 최근 시클로 및 세움(오토바이택시)의 경우, 바가지 요금 및 범죄 행각 증가
- 보행 시 주의요망
  - 도로에 신호등, 육교 등이 거의 없어 도로 횡단 시 매우 위험
  - 도로, 호텔 근처에서 호객을 하는 경우는 장물일 확률이 높으므로 구매 지양
  - 현지인과 사소한 문제로 언쟁할 경우, 집단구타, 흉기위협이 있을 수 있음
  - 지갑, 여권, 휴대폰, 테블릿 PC 등의 도난 주의

- 음료수 등 음식물 주의
  - 길거리 음식 및 해산물은 간염, 이질 등 위험이 높음. 가능한 끓인 물, 익힌 음식을 드시는 것이 바람직
- 택시 이용 시 주의 요망
  - 가능한 호텔택시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미터기에 나온 금액보다 더 나왔을 경우 적은 금액은 가급적 포기하는 것이 신변에 안전함
  - 택시기사 중 일부는 분쟁발생시 흉기로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있음
  - 택시 이용 시 가급적 Vinasun, MaiLinh, Grab 등 유명 회사 택시 탑승을 권장
- 베트남 유흥업소 출입은 매우 위험
  - 외국인을 대상으로 유흥업소 호객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최근 베트남 정부는 현지 유흥업소 및 마사지샵 등을 불시 집중단속하여 성매매 사범 등을 구금 및 강제추방하고 있음(베트남은 매춘 금지 국가)

## VI. 주요 연락처

### 1. KOTRA 하노이무역관(KOTRA Hanoi Korea Business Center)

- 주소: 20th floor Charmvit Tower 117 Tran Duy Hung St., Cau Giay Dist. Hanoi
- 전화: +84 (0)24 3946 0511 / 팩스: +84 (0)24 3946 0519
- 이메일: kotrahanokbc@gmail.com

### 2. 한국 대사관(하노이)

- 주소: SQ4 Diplomatic Complex, Do Nhuan St, Xuan Tao, Bac Tu Liem, Hanoi
- 전화: +84 (0)24 3831 5111, 영사부 +84 (0)24 3771 0404

### 3. 한국 총영사관(호치민)

- 주소: 107 Nguyen Du St., Dist.1 HCMC, Vietnam
- 전화: +84 (0)28 3822 5757 / 팩스: (84-28) 3822 5750

### 4. 항공사

- 대한항공: +84 (0)24 3934 7247
- 아시아나항공: +84 (0)24 3771 4094
- 베트남항공: +84 (0)24 3832 0320

### 5. 국내은행

- 신한비나은행: +84 (0)24 3724 6814
- 우리은행: +84 (0)24 3831 5281 9
- KEB하나은행: +84 (0)24 3771 6800

### 6. 병원

- 빈멕 Vinmec General hospital: +84 (0)24 3974 3556(내선1)  
\* 응급실: +84 (0)24 3974 4333
- 패밀리 메디컬 Family Medical Practice Hanoi: +84 (0)24 3843 0748
- 아이메디케어 I-Medicare: +84 81 340 0101
- 흥응옥경남 HongNgocClinicKeangnam: (84-243) 927 5568(내선8)
- 김스클리닉 KimsClinic: +84 (0)24 6128 1041

## 7. 현지 주요식당

### □ 한식

고궁	2F, Keangnam, Phạm Hùng, Từ Liêm	024 3762 4332	일반한식집
목향	1F, Golden Palace, Mỹ Trì, Nam Từ Liêm	090 450 7949	일반한식집
비원	9F, Landmark 72 Tower, Mỹ Trì, Từ Liêm	097 625 3300	일반한식집
아리랑	3F, Grand Plaza Hotel, 117 Trần Duy Hưng	024 3555 1000	일반한식집
고주몽	6F, Lotte Department Store, Ba Đình	024 3333 2641	일반한식집
맛찬들	Từ Liêm, CT4 ĐN KĐT Mỹ Đình - Đường	024 3204 5112	일반한식점

### □ 중식

대우호텔 Ngan Dinh	360 Kim Mã, Ba Đình	090 216 7698	고급중식
연경	8F, Landmark 72 Tower, Mỹ Trì, Từ Liêm	024 6282 3355	일반중식
자금성	99 Phạm Hùng, Mỹ Trì, Từ Liêm	084 439 4251	일반중식

### □ 일식

대우호텔 에도(edo)	360 Kim Mã, Ba Đình	090 344 8098	고급일식
하나유키	15 Đào Tấn, Ba Đình	024 3766 8972	일반일식
제주취명	1F, Keangnam, Phạm Hùng, Từ Liêm	024 3377 4888	한국식 일식

## ☐ 베트남식

<b>Quan An Ngon</b>	25T2 Hoang Dao Thuy str , Cau Giay	024 3556 0866	베트남 전통식
<b>Pho Bien</b>	14, Trang Thi str, Hoan Kiem	024 3928 5757	베트남 해산물
<b>Nha Hang Hue</b>	36 Dao Tan str, Ba Din	024 3760 6516	베트남 전통식
<b>Ưu Đàm Chay</b>	55 P. Nguyễn Du, Nguyễn Du, Hoàn Kiếm	098 134 98 98	베트남 채식
<b>Cồ Đàm Chay</b>	68a Trần Hưng Đạo, Hoàn Kiếm, Hà Nội	090 833 36 96	베트남 고급채식
<b>Pho Thin 13 Lo Duc Str.</b>	13 P. Lò Đúc, Phạm Đình Hổ, Hai Bà Trưng		쌀국수
<b>Bún chả Hương Liên</b>	24 P. Lê Văn Huu, Phan Chu Trinh, Hai Bà Trưng	024 3943 4106	오바마 분짜
<b>Pho 10 Ly Quoc Su</b>	10 P. Lý Quốc Sư, Hàng Trống, Hoàn Kiếm	0847 225 586	쌀국수
<b>Phở gia truyền</b>	49 P. Bát Đàn, Cửa Đông, Hoàn Kiếm		백종원 쌀국수
<b>Ngon Garden</b>	70 P. Nguyễn Du, Trần Hưng Đạo, Hai Bà Trưng	090 222 6224	베트남 전통식
<b>Banh Mì 25</b>	25 P. Hàng Cá, Hàng Bồ, Hoàn Kiếm	094 254 82 14	반미
<b>Sadhu vegetarian buffet</b>	Ước Complex-N04 P. Hàng Đạo Thúi, Trung Hoà Cầu Giấy,	098 330 96 99	베트남 채식
<b>Bún Bò Nam Bộ Hàng Điều</b>	73-75 Hàng Điều, Cửa Đông, Hoàn Kiếm	091 152 9166	분보남보
<b>Blue Butterfly Restaurant</b>	69 Ma May Ma May Hoàn Kiếm	091 435 19 85	베트남 전통식
<b>MET Vietnamese restaurant</b>	29 P. Hàng Trống, Hàng Trống, Hoàn Kiếm	098 562 79 76	베트남 전통식
<b>Bánh Tráng Thịt Heo Gang Mỹ</b>	17 T1, 17T1, P. Hàng Đạo Thúi, Trung Hoà Cầu Giấy	098 731 44 62	베트남 전통식

## ☐ 양식

<b>Pizza 4P's</b>	11B, Bao Khanh Alley, Hoàn Kiếm	028 3622 0500	피자
<b>Pépé La Poule</b>	22 P. Quảng Khánh, Quảng An, Tây Hồ	024 6291 2641	파스타, 양식
<b>Con Heo Béo</b>	74 P. Quảng An, Quảng An, Tây Hồ	024 6292 4120	숯불구이
<b>6 Degrees</b>	189 Nghi Tàm, Yên Phụ, Tây Hồ	098 524 9189	피자, 양식
<b>dragonCELLO</b>	201 P. Vệ Hồ, Xuân La, Tây Hồ	0355 785 046	피자, 양식
<b>Los Fuegos</b>	35a Ng. 12 Đ. Đặng Thai Mai, Quảng An, Tây Hồ	0396 263 869	스테이크, 양식

## <참고1> 한-베트남 고위급 외교 일지

○ 한-베 수교 : 1992. 12. 22

○ 정상급을 포함한 고위급 인사 교류 활발

- 1993. 5월 Vo Van Kiet 총리 방한
- 1996. 11월 김영삼 대통령 방베
- 1998. 12월 김대중 대통령 방베
- 2001. 8월 Tran Duc Luong 국가주석 방한
- 2002. 4월 이한동 총리 방베
- 2003. 9월 Phan Van Khai 총리 방한
- 2004. 10월, 2006. 11월 노무현 대통령 방베
- 2007. 11월 Nong Duc Manh 당서기장 방한
- 2008. 3월 Nguyen Phu Trong 국회의장 방한
- 2008. 4월 임채정 국회의장 방베
- 2008. 5월 Truong Tan Sang 당 상임서기 방한
- 2009. 10월 이명박 대통령 방베(Korea week)
- 2009. 12월 김형오 국회의장 방베
- 2010. 10월 이명박 대통령 방베(아세안 정상회담)
- 2011. 11월 Truong Tan Sang 국가주석 방한
- 2013. 9월 박근혜 대통령 방베
- 2014. 10월 Nguyen Phu Trong 당서기장 방한
- 2014. 12월 Nguyen Tan Dung 총리 방한, 한-베 FTA 체결 타결
- 2015. 5월 한-베 FTA 공식 서명
- 2015. 12월 한-베 FTA 공식 발효
- 2017. 4월 정세균 국회의장 방베
- 2018. 3월 문재인 대통령 방베
- 2018. 9월 이낙연 국무총리 방베
- 2020. 10월 박병석 국회의장 방베
- 2022. 12월 한-베 30주년, Nguyen Xuan Phuc 국가주석 방한
- 2023. 1월 김진표 국회의장 방베
- 2023. 6월 윤석열 대통령 방베

## <참고2> 하노이 인근 주요 관광지

### □ 호치민 묘소(Ho Chi Minh's Mausol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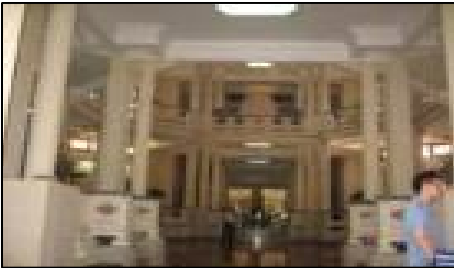
- 호치민 사망(1969년)후 1975.9.2에 완공된 석재 묘소로 건물 내부에 호치민 주석의 시신이 유리관 속에 안치되어 있음. 호치민은 생전에 화장을 원했으나 레닌, 스탈린의 예를 좇아 베트남 국민의 단결을 표상하기 위해 묘소 건물로 지어짐
- 묘소 뒷편(500m)에 호치민 생존 당시 거소 및 사무실용 목조건물, 호치민 박물관이 있으며 전면의 바딩(Ba Dinh) 광장(국가 주요행사 장소)을 중심으로 주석궁(President Palace), 공산당사, 국회, 외무부, 외국 공관 등 핵심기관이 위치
- 매일(월·금요일 제외) 08:00~11:00 일반에 공개되며 매년 9~11월 초순간 연례 보수기간에는 문을 닫음(호치민 시신을 러시아로 옮겨 부패방지 처리함)
- 베트남 국회와 공산당 본부 건물 건너편 넓은 바딘 광장에 갈색의 대리석으로 된 사각형의 웅장한 건물이 "독립"과 "통일"이라는 두가지 과업을 이룩해낸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는 호치민의 묘소로 아직까지 많은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음

### □ 문묘(Van Mieu)



- 11세기에 세워진 베트남 최초의 대학. 특히 그 안에 있는 규문각은 19세기 원조(元朝)시대에 만든 82개의 비석이 세워짐. 15-18세기 300년 동안 2년에 한 번씩 행한 과거시험의 합격자 명단을 새긴 82개의 진사제명비가 서있음
- 공자 위패를 모시기 위해 1070년에 세워진 이래 1076년부터는 최초의 대학으로서 유교학자를 양성했음. 문묘는 전통 베트남식 건물로 원형 그대로 보존이 되었으며 타원형의 기와로 만든 지붕이 아주 멋있고 벽이 없이 탁 트인 건물과 넓은 경내는 거리의 북적거림과는 거리가 먼 아주 조용한 명소임

## ▣ 역사 박물관(History Museum)



- 선사시대부터 1945년까지의 베트남 역사 유물 소장
- 소재지 : 1, Pham Ngu Lao
- 1945년 이후 유물은 혁명박물관이 별도 소장

## ▣ 전쟁(육군) 박물관(Army Museum)



- 베트남의 전쟁 역사를 보존하는 박물관으로서, 디엔비엔푸 전투, 월남전쟁, 사이공 함락 등 수많은 전쟁 관련 사진 및 자료가 전시되어 있음
- 박물관 뜰에는 소련·중국에서 제공했던 무기가 설치되어 있음

○ 소재지 : Dien Bien Phu 거리

○ 동 박물관 우측에는 베트남 국기대(Flag Tower)인 육각형의 대형탑이 있음

## ▣ 베트남 민족학 박물관 (Vietnam Museum of Ethnology)



- 베트남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비엣족 외에 크메르족, 타이족, 흐몽족 등 53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임. 베트남 민족학 박물관은 베트남에 공존하고 있는 소수 민족의 독특한 문화적 색채를 엿볼 수 있는 대표적 공간

○ 1995년 10월 24일자 총리령에 의해 건립이 추진되어 1997년 10월 24일 정식 개관한 베트남 민족학 박물관은 베트남 사회과학원 소속의 국립 박물관으로, 베트남 및 동남아 지역 소수민족의 유물과 자료를 수집, 연구, 보관, 복제하고 이를 자국민 및 외국인에게 소개하고, 교육함으로써 세계의 민족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하는 데 운영 목적을 두고 있음

○ 소재지 : Nguyen Van Huyen 거리

## □ 하롱베이(Halong Bay)



- 하노이에서 4시간, 140km 떨어진 남동쪽 광닌(光林)성의 해안 절경지대 하롱만(Ha Long Bay)은 3천개가 넘는 아름다운 섬으로 이루어졌음
- 하롱은 '하룽(下龍)'이란 뜻으로, 옛날 외적의 침략을 용이 내려와 쫓아낸 흔적이라는 전설에서 유래
- 1950년 프랑스 아세트출판사는 자연이 만들어낸 조각품인 이 섬들을 세계 8대 불가사의로 꼽았다. 90년대 중반 유네스코는 하롱만을 세계의 자연유산으로 지정함

## □ 땀꼭(Tam Coc)



- 하노이 남쪽 약 115km 거리에 있는 땀꼭은 '숲 속의 하롱베이'라 불림. 하롱베이의 모습을 축소한 것 같은 땀꼭은 수많은 기암괴석이 볼거리를 제공함
- 땀꼭은 '세개의 동굴'이라는 뜻으로, 실제 이곳에는 '항카', '항하이', '항바라'라는 동굴이 있음
- 동굴투어는 항구에서 나룻배로 이용. 오동강의 물줄기를 따라 물고기를 잡으며 사는 베트남 사람의 삶을 엿볼 수 있음

## □ 장안(Trang an)



- 2010년 봄에 베트남 정부에서 닌빈 지역에 새롭게 개발한 땀꼭과 비슷한 습지 수로관광 코스
- 땀꼭은 수로를 타고 3개의 동굴 탐방이 주류를 이루지만, 장안은 48개의 동굴이 발견되어 그중에 11개의 수로동굴을 관광객에게 개방
- 배를 타고 11개의 수로동굴을 지나는 풍경이 일품

### <참고3> 간단한 베트남어

안녕하세요. Xin chào. (썸 짜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Rất vui được gặp ((남) anh/(여) chị)  
(젓 부이 드억 갑 (아인/찌))

상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Xin cảm ơn ngài đã cho gặp.  
(썸 감 언 응아이 다아 쯔 갑)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Rất có ích đối với tôi.  
(젓 꼬 익 도이 버이 또이)

또 뵈겠습니다. Chúng ta sẽ gặp lại nhau. (쑹 따 쎬에 갑 라이 냐우)

감사합니다. Xin cảm ơn. (썸 감 언)

얼마입니까? bao nhiêu tien?(바우니우 땡?)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 Anh/Chi Ten gì a ?(아잉(남)/찌이(여) 땡 지 아?)

제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Tên tôi là (Hongkildong). (땡 또이 라(홍길동))

잘 모르겠습니다. Tôi không biết. (또이 크움 비엣)

실례합니다. Xin lỗi. (썸 로이)

오늘 hom nay (홈 나이), 내일 ngay mai (응아이 마이), 어제 hom qua (홈 과)

## 해외출장 가이드



[www.kotra.or.kr](http://www.kotra.or.kr)